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5. 2(월) 17:00		
배 포 일 시	2010. 5. 2(월) 15: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윤석호 (2150-5550)	담당자	오서정 사무관(2150-5553)

제목: 자율경영 공기업, 민간기업도 부러워할 성과 달성 **- 맞춤형 목표 · 인센티브 주니, 생산성은 오르고 예산은 절감돼... -**

- 기획재정부는 5.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 대상기관인 지역난방공사,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의 '10년도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우수" 등급으로 확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공기관의 조직 · 인력 ·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되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서(자율경영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
평가를 대체), '10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금번에 최초로 그 실적을 평가함
(’09.12.11. 보도자료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공모 추진 참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 서울대 이창우 교수)의 평가결과에서

① 지역난방공사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대 상장기업 평균 6.3%
보다 58%높은 수준인 9.95% 달성

- 높은 영업이익률은 축열조 건설비 절감 등 원가절감(△400억원), 예산절감
(△147억원)을 통해 달성
-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450억원의 고정비를
감소시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음

② 기업은행은 '직원 1인당 이익'이 4대 민간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평균(2.43억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인 4.88억원을 달성하였고,

- 연체대출 채권비율도 시중은행 평균(0.79%)보다 우수한 0.67% 달성
- 특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78%임에도,
중소기업 연체대출 비율은 은행평균 1.1%보다 낮은 0.75%를 시현

③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항공물량’ 처리량이 전년대비 14.5% 증가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 달성

- Delta 항공 등 12개 신규 항공사의 취항을 유치('09년:6개)하고, 이라크 아르빌 공항 등 해외 5개 공항에 공항운영 노하우를 수출하여 97억원의 수익 창출
- 항공사 직항 운항 증가로 경쟁공항인 간사이, 푸동 공항이 각각 $\Delta 60\%$, $\Delta 27\%$ 의 환승여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전년도 수준의 환승 여객(519만명) 규모를 유지

④ 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 엔카나 확장광구(잭파인, 노엘)의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유·가스전 확보매장량이 대폭 증가('09년:11→'10년:34백만톤)

- 가스배관망 건설량도 '09년 165km에서 '10년 489km를 신규로 완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크게 개선

□ 이들 4개 기관이 다른 공기업보다 2~3배 높은 도전적인 목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 (예시) [지역난방]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 : (5년평균) 7.3% → ('10년)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 : (5년평균) 7.5% → ('10년) 5.3%

- ① 4개 기관이 경영실적이 좋은 기관 42개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관이고,
- ②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 인력운영·예산상 인센티브가 부여된 반면, 평가부진시 기관장 퇴임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 ③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조도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평가단이 인지한 자율경영 대상기관의 경영상 변화된 특징으로는

- ① 이들 기관들이 동종 민간기업이나 외국의 유사기업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경쟁기업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예시) 기업은행은 민간은행보다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② 과거보다 예산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임

* (예시) 지역난방은 예산절감('09년 : 76 → '10년 : 147억원),
원가절감('09년 : 227 → '10년 : 400억원)을 위해 노력
가스공사는 배관망 건설 목표치(294km)를 월등히 초과달성한 489km를 조기 완공

□ 한편, 자율경영 시범사업 기관들은 고유사업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 하였으나, 민영화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각각 △3~△4.5점의 감점을 받아,

○ 지역난방(96.4점) > 기업은행(95.5점) > 인천공항(90.08점) > 가스공사(89.52점) 순으로 최종 점수를 획득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개 기관은 경영자율권이 계속 유지되고, 오는 6월 확정되는 기관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1등급 범위내에서 추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장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됨

□ 2011년도에는 한국공항공사, 산업은행이 추가 선정되어 총 6개 기관이 경영자율권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율권 확대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하여,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발전에 노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2010년도 자율경영 기관장의 실적평가 주요내용
2. 2010년도 자율경영 이행실적 평가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지역난방 원가 절감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난방요금 부담 경감

□ 강도 높은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9.95% 달성

- 지역난방공사의 5개년('05~'09) 실적(7.3%) 대비 30% 이상, 타기업과 비교시에도 약 2배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

* 50대 상장기업 6.3% / 공기업 4.5% / 동종업종(전기·가스·증기업) 4.3%

- 자율경영계약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경영진이 지사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 노사 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회의운영비 등 관리가능 경비를 총 147억원 절감('09년 : 76억원 → '10년 : 147억원)

- 또한, '10년도 원가절감 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재료비 및 투자비 부문 등에서 총 400억원의 원가를 절감('09년 : 227억원 → '10년 : 400억원)

* 대표적인 원가절감 사례

① 화성지사 가스터빈용 천연가스 공급압력을 적정압력(27→35kg/cm²)으로 공급받음
⇒ 천연가스 압축기 가동비용(동력비) 5억원을 절감

② 축열조를 일반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전문공사로 별도 발주
⇒ 43억원의 공사간접비 절감 및 중소전문건설업체 보호에도 기여

-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성과의 수혜(450억원)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함

* 고정비 감소액 : 3,707원/Gcal × 12,126천Gcal = 450억원

□ 증시상장·출자사 매각으로 부채비율 66%p 감소 효과

- 증시상장(1,303억원), 안산도시개발(주) 등 출자회사 매각(703억원)으로 자금 유입

* 공익성 확보 대책(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등)을 마련하여 10년 동안의 상장노력 결실('10.1.29)

기업은행 은행권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

□ 기업은행의 2010년도 1인당 총전이익*은 4.88억원을 기록

- 전년대비 50% 수준이 증가하여, 4대 민간은행의 '10년 1인당 총전이익의 2배 수준 달성

* 총전이익(총당금 적립전 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총당금순전입액

(억원)	2010년	평균('06~'09)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IBK기업은행(a)	4.88	3.25	2.95	3.46	3.60	3.00
배수 (a/b)	2.0배	1.4배	1.6배	1.6배	1.3배	1.2배
Gap (a-b)	2.45	0.90	1.11	1.25	0.82	0.43
은행평균* (b)	2.43	2.35	1.84	2.21	2.78	2.58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평균, 은행별 경영공시 자료 기준)

○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고금리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저금리 전환 발행 등 예·대마진 개선을 위한 시장상황별 시나리오 플랜(상시관리, 위기관리 등) 수립·운영
- '10년 임직원 임금 동결('09년 : 5% 삭감), 에너지 절약 등 자체 경비절감 운동 전개(알뜰살뜰 365 경비절감운동) 등을 통한 일반관리비 감축(361억원)*

* 직원급여 감축 300억원, 부점장급 시간외수당 지급 중지 26억원, 신입행원 급여 삭감 31억원 등

□ 기업은행의 2010년도 연체대출채권비율은 0.67%를 기록

-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총 여신의 78%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연체비율 0.79%보다 △0.12%p 낮은 성과 달성

(%,%p)	기업은행(a)		타행 평균*(b)		차 이(a-b)	
	총연체율	중기대출 연체율	총연체율	중기대출 연체율	총연체율	중기대출 연체율
2009년말	0.54	0.60	0.51	0.82	0.03	△0.22
2010년말	0.67	0.75	0.79	1.10	△0.12	△0.35
증 감	0.13	0.15	0.28	0.28	△0.15	△0.13

(타행평균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 가중평균)

○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체계수립

- 지역본부 및 영업점별 연체감축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표준화된 여신심사체크리스트 등 제공으로 심사역량 강화

인천공항 우수한 경영 성과 달성 및 공항운영 기술 수출

- 국제선 항공물량 처리량 증가, 서비스 평가 1위 등 우수한 성과 달성
 - 일반 경영평가에 비해 도전적 성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인력·조직 등 자율경영을 통해 운항·여객·화물운송 실적의 목표 초과 달성
 - * 국제선항공운송(ATU) : 일반 기관평가 만점수준은 75,903천('09년도실적+표준편차)→자율경영목표 78,400천('09년도실적+1.3×표준편차)→'10년도실적 80,813천('09년 대비 14.5% 증가)
 - ** ATU : Airport Throughput Unit(운항, 여객, 화물 총처리량)
 -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국제화물 2위(270만톤), 국제여객 8위*(3,300만명) 등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도약
 - * 여객운송 순위 4단계 상승(세계 12위→8위), 화물운송 세계 2위 유지
 - 미래전략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5개 해외 공항에 건설·운영 서비스 수출('10년 : 97억원, 전년대비 24% 증가)
- 기업가치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10년 영업이익률 41.5%, 직원당EBITDA*가 10억원을 상회하여 경쟁국제공항 보다 높은 수익성 및 생산성 확보
 - * 직원당EBITDA는 글로벌 선도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3.5억원), 프랑스 드골(1.2억원), 독일 프라포트(0.5억원) 등 보다 높음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10년 부채비율 69%(전년대비 16%p 감소), '04년 이후 7년 연속 흑자 경영(평균 2천억원) 등 재무건전성 지속 향상
- 공항의 안정성, 신속성,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 등
 - 8만시간 무중단으로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출국은 16분, 입국은 12분이 소요되어 국제기준(출국 60분, 입국 45분)의 1/4 수준이며, 공항서비스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도모

가스공사 해외 자원개발 성과 창출 및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 국내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가스전 확보

-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총 매장량, 원유환산 63억배럴), 바드라 유전(8억배럴), 아카스 가스전(5.9억 배럴), 만수리아 가스전(4.9억 배럴) 개발광구 확보 등을 통해 가스공사 자체 자주개발율* 제고(2.3%→10%)

* 산식 : 공사생산량/도입물량

(공사생산량) 공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총생산량 × 공사 지분율
(도입물량) 공사가 연간 도입하는 LNG 총도입물량(톤)

○ 非전통 가스자원(캐나다 Unconventional Gas) 확보

- 북미 캐나다 천연가스 자원(3억배럴) 확보로 차세대 에너지 선점 및 미주지역 LNG 사업 진출기반 마련

* Unconventional Gas : 천연가스·석유 등 전통 화석연료 이외의 비전통 가스자원으로, Shale Gas, Tight Gas, Coal Seam Gas, Coal Bed Methane(CBM) 등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가스보급 확대

-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10년 천연가스 공급 : 영월, 고성, 횡성, 상주(청리)지역 등) 배관망 건설의 획기적인 진척으로 목표치 초과달성

('09년 실적 : 165km→'10년 목표 : 293km→'10년 실적 : 489km)

□ 경영효율화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

- 기능·인력조정을 통하여 교대근무 개선(143명 감축), 청경·소방 등 민간위탁(69명 감축) 및 직원사택 대폭 감축(302세대)

* 직원사택 감축효과 : 327억원(전세금회수: 296억(283세대), 사택 매각: 31억(19세대))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신규 단체협약 체결

참고 2

2010년도 자율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개요

1 평가대상 기관장 및 기간

- '09.12월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 기관장의 1년간('10.1.1~12.31)의 경영 실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방법

부문	고유성과과제	공통과제	
가중치	100점	가감방식 (각각 +1.5~△6점/ 최대 +3~△12점)	차감방식 (0~△3점)
평가지표	▪ 기관별로 旣선정된 3~4개 성과목표	▪ 공공기관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 자율권 운영의 적정성
평가방법	▪ 계량평가	▪ 6등급 비계량평가	▪ 3등급 비계량평가

3 평가결과의 종합 및 활용

등 급		우수(85점 이상)	보통(70~85점)	부진(70점 미만)
구 분				
자율권	지속여부	지속		회수 ¹⁾
기관장	인사	연임건의	-	자진사퇴
	성과급	성과급 차등지급 ²⁾		미지급
임직원	성과급 ³⁾	1등급 범위내 가산	-	1등급 범위내 차감

1) 자율권부여(정원 및 조직) 이전 단계로 환원

2) 기관 평가(50%) + 자율경영계획서 평가 (50%)

3) 예산지침 상의 성과급지급률 상하한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